

환율 하락 반전·코스피 약보합·채권 금리 안정

한국 금융시장 위기감 사라지나

외환 당국 "필요한 만큼 외환 공급" 개입 시사

원·달러 환율이 미국의 구제금융안 재추진에 대한 기대감으로 8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하는 등 외환시장이 모처럼 안정을 되찾았다.

또 증권시장은 전날 미국 증시의 급등세에 부딪히며 약보합세를 나타냈고, 채권금리도 소폭 반등하는 등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1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20.00원 급락한 1,187.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달 22일 이후 8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미국 상원의 구제금융안 표결 소식과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시장개입 의지 등이 급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증권시장은 전날 뉴욕 증시 급등에도 불구하고 약보합세를 보이는 등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8.39포인트(0.58%) 하락한 1,439.67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미국의 구제금융 재추진 기대에 강보합세로 출발했으나

등락을 보인 끝에 소폭 하락세로 마감했다. 개인이 3천485억원 어치의 주식을 사들인 반면, 외국인은 1천70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해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0.18포인트(0.04%) 상승한 440.95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 영향으로 나흘 만에 소폭이나마 반등에 성공했다.

채권시장도 전날 금리 급락의 영향으로 3개월 만기 국고채 금리는 5.75%와 연 5.87%로, 나란히 0.01%포인트 상승에 그치는 등 조정분위기가 뚜렷했다.

이와 관련,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당정회의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외환시장 개입 의지를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금융기관 등이 자금 부족 현상에 처하지 않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이 필요할 때 외환수요에 맞게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앞으론 경영난, 뒤로는 호화생활

이중적 기업인 세무조사 받는다

국세청, 법인 조사대상 선정 방향

경영난 겪고 있는 기업의 대표자와 그 가족들이 지나친 호화생활을 할 경우 해당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개인적 지출을 법인비용으로 떠넘기거나 주주, 친족간 내부거래가 지나치게 많은 기업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확률이 높아진다.

국세청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08년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방향'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법인 ▲4사업연도 이상 미조사 법인 중 적정성 검증의 필요가 있는 법인 가운데 약 2천700개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을 선정하는 신고 성실도 분석시스템의

평가요소는 종전 199개에서 351개로 대폭 늘려 불성실 법인 선정의 변별력을 높였다.

국세청은 특히 각종 세금탈루 유형을 평가요소에 반영해 기업주와 가족의 생활수준, 소비성향과 재산변동 상황을 법인 신고내용과 연계해 탈루혐의를 분석하기로 했다.

결손법인 사주가 잦은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오거나 특별한 소득이 없는 사주 가족이 고가 부동산을 여러 건 사들이는 경우가 대표적 유형이다.

해외법인을 내세워 기업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골프, 성형수술, 한의원 진료비 같은 사적 지출을 법인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접대비 등 소비성 경비를 다른 계정으로 분산처리한 혐의가 있는 경우도 평가요소에 반영돼 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연합뉴스

주식형펀드 42조 '증발'

올 3분기까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대규모 평가 손실

올해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 등 여파로 주식형펀드들이 42조원 가까운 평가손실을 냈다.

1일 펀드평가사인 제로인에 따르면 국내주식형펀드의 연초 이후 9월 말까지 평균 수익률은 -22.89%, 해외주식형펀드는 -35.42%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주식형펀드의 평가손실은 국내주식형 17조7천억원, 해외주식형 23조8천억원 등 총 41조5천억원

으로 추산된다.

국내주식형펀드는 순자산 100억원 이상 336개 펀드 중 성적이 가장 양호한 '동양모아드림삼성그룹주식 1클래스A'의 수익률이 -11.92%를 기록하는 등 주요 펀드들이 모두 최소 10% 이상의 손실을 냈다. 성적이 가장 부진한 '우리CS 부울경우량기업플러스주식투자 1C 1'은 -33.24%를 기록했다.

수익률 편차가 훨씬 큰 해외주식형펀

드의 경우 순자산 100억원 이상 357개 주요 펀드 중 원자재펀드인 '미래에셋맵스로지스코모더티(Commodity)인덱스파생상품'과 남미신희시장펀드인 '하나UBS 라틴아메리카(Latin America)주식자 1클래스A' 등 4개만 2~4%대의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을 뿐 나머지는 손실을 면치 못했다.

해외주식형펀드 중 가장 성적이 부진한 펀드는 중국펀드인 '미래에셋차이나인프라섹터주식형자(CLASS-A)'로 -58.59%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9월 무역 적자 19억달러

8개월째 기록... 연간 적자 규모 환란때보다 더 클듯

9월 무역수지가 19억달러 적자를 내면서 올해 들어 9개월 중 8개월째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무역수지 누적 적자는 142억달러로 불어나 연간 적자는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1997년의 84억5천만달러 적자보다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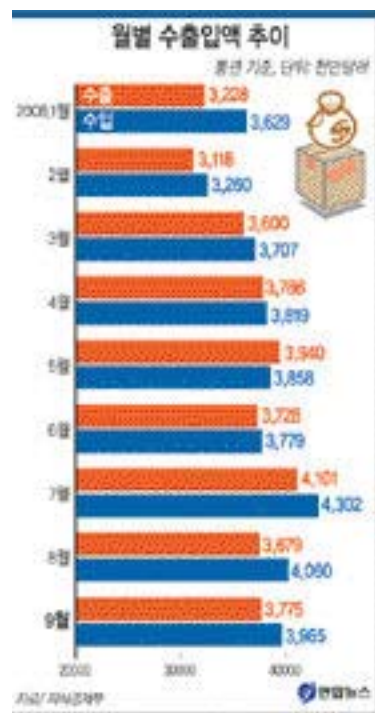
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377억5천만 달러, 수입은 396억5천만달러로 18억9천만달러의 월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9월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5.8% 급증했고 수출액 역시 작년동월 대비 28.7% 늘었다.

지경부는 현대자동차의 부분과업에 따른 수출 자질이 8억달러에 이르고 철강제품의 수입이 43억8천만 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5대 수입품목 가운데 원유와 석유제품, 석탄의 도입단가는 8월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철강제품과 가스의 도입단가는 증가세를 지속해 적자 요인으로 작용했다. /연합뉴스



삼성 '트윈 LCD 핸드폰' 삼성전자가 핸드폰 내·외부에 2.2인치 LCD를 탑재해 폴더를 닫으면 터치스크린폰, 열면 폴더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트윈 LCD 핸드폰 '스타일보고서(SCH-W570, SPH-W5700)'를 출시했다. 핸드폰 가격은 60만 원대. /연합뉴스

중대형 미분양 주택도 이달말부터 매입한다

환매조건부 허용 방침

정부가 빠르면 이달말부터 중대형 미분양주택도 매입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중소형 주택만 매입해 왔으나 최근 미분양주택 증가가 중소형보다는 중대형에서 이뤄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이다.

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이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 매입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현재 의견수렴 중이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빠르게 진행해 이달 말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환매조건부 매입은 대한주택보증이 현재 건설중인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의 70~75%수준에서 사들인 뒤 준공 시점에 다시 건설사에 팔게 된다.

미분양으로 자금난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설업체는 주택이 준공되는 시점에 풀옵션을 행사해 되살 수 있다. 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에 투입할 자금은 최대 2조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SK telecom 같은학교, 학생끼리

통화료 50%할인

학교끼리 T타입 할인제도

2008년 10월 2일

광주광역시 남구 마량미항

마량미항에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코스코스 레저캠프 개최를 위하여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코스코스 레저캠프 개최를 위하여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코스코스 레저캠프 개최를 위하여

제2회 마량미항축제

10월 2일(목) ~ 10월 5일(일) 4일간 개최

- 주최: 마량미항 레저캠프
- 주관: 마량미항 레저캠프
- 후원: 광주광역시, 마량미항 레저캠프

행사명	내용	장소
1. 마량미항 레저캠프	마량미항 레저캠프	마량미항 레저캠프
2. 마량미항 레저캠프	마량미항 레저캠프	마량미항 레저캠프
3. 마량미항 레저캠프	마량미항 레저캠프	마량미항 레저캠프

문의: 마량미항 레저캠프 (02-123-4567)